



구자용(주안대학원대학교)

1. 들어가는 말

구약 성서 속에 그려진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다른 민족들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면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왕정의 성립 과정이다.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야웨(JHWH) 하나님의 신정(神政) 체제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왕정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b)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의 가장 기초적 근거는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כִּי־כֹל־מְלֻכִּים, 커콜-학고임; 삼상 8:5b, 20a)란 표현에 있다. 이 표현은 먼저 이스라엘 주변의 크고 작은 모든 국가들에 왕이 세워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왕을 가짐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분명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우리는 ‘왕의 이

www.kci.go.kr

데올로기’(royal ideology)라고 지칭할 수 있다. 알스트룀(Gosta W. Ahlström)은 ‘고대 근동의 왕의 이데올로기’를 “왕의 지위와 제의적 역할에 관해 종교적 기반 위에서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정의한다.¹⁾ 그럼으로써 왕에게는 신적 기원과 속성이 부여되고, 그 속성은 왕으로 하여금 전지(全知)하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이다. ‘고대 근동의 왕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알스트룀의 정의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잘 부합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나타난 대로 왕의 신적 기원, 즉 ‘아웨가 왕을 선택함’에 대한 이스라엘의 확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신과 사람의 매개자로서 기능하는 왕의 제의적 역할에 대한 실례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에서 확인하기 힘들며,²⁾ 단지 시편의 신학적 그리고 문학적 표현상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이다.

구약 성서에는 왕의 신적 기원 외에도 ‘고대 근동의 왕의 이데올로기’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하는 요소들이 적잖게 관찰된다.³⁾ 그 서술들로부터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B5A01010574)과 또한 같은 해에 디트리히(Walter Dietrich)의 주관 하에 ‘The Books of Samuel: Stories – History – Reception History’란 주제로 개최되었던 Colloquium Biblicum Lovaniense(CBL, 2014. 7. 30 ~ 8. 1/벨기에 루뱅대학교)에서 발표되었던 short paper인 “Ironisierte Königsideologie in der sog. Thronfolgeggeschichte Davids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Gerichtsverfahrens des Königs”를 번역 및 수정하고, 당시 발표시간이 짧은 관계로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둔다.

- 1) G. W. Ahlström, “Die Königsidologie in Israel: Ein Diskussionsbeitrag”, *Theologische Zeitschrift* 18 (1962), 205.
- 2) 삼상 13:8 이하에서 관찰되는 사울의 제의적 행위는 왕으로서의 당연한 행위로 보아기는커녕 오히려 활난의 대상으로만 서술될 뿐이다. 한편 언약궤를 다시 매어 오는 사건을 서술한 본문(삼하 6:12-23)에서의 ‘왕’으로서의 다향의 모습,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직후 있었던 ‘일천번제’(왕상 3:1-4) 그리고 성정봉헌식(왕상 8장)에서의 모습은 제의적 행위에 있어서 ‘왕’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제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 가령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 3) 전술된 삼상 8:4ff과 신 17:14ff 외에 특별히 시 72:1-4; 왕상 3:6-15, 16ff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구자용, “*Imago Dei, dominium terrae, Missio Dei*: 창세기의 인간 창조 서술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선교신학』 43집 (2016년 3월), 20-21을 참고하라.

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상(像)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데 예상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상(像)들 중에서 특히 ‘왕의 사법적 행동에 있어서 공의를 이루는 것’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을 서술하는 맥락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두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두 요소를 이스라엘의 첫 세 왕인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대입하여 살펴볼 때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이 두 요소가 교묘하게 짜인 문학적 서술 장치들을 통해 ‘모호함’ 속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윗이 왕으로서 집행하는 사법 행위에 주목하여 볼 때, 그 서술은 마치 ‘그를 단지 무능한 재판관으로만 소개하고자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할 정도로 의아해 보인다. 그러나 만약 그 서술 의도가 그것에만 있지 않다면, 혹은 왕의 위치에서 수행된 다윗의 사법 행위에는 ‘아이러니화’라는 교묘한 서술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무엇인가가 확고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서술 방식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독특한 서술 방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서술로부터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왕의 상(像)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는가? 만약 이것 역시도 ‘역사 서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독특한 문학적인 형식 하에서의 역사 서술’이라면, 이것 자체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⁴⁾

이 논문은 ‘다윗의 왕위계승사에 서술된 왕의 이데올로기’란 주제적 범위 안에 머문다.⁵⁾ 고찰의 대상은 사무엘하 12장 1-7b절, 14장, 16장

4) 역사 서술의 다양한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윗의 왕위계승사에 대한 역사 서술은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이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다윗의 왕위계승사를 지혜신학적 관점에서의 역사 서술로 본 오민수의 논문은 참고할만하다. 오민수, “지혜문학적인 역사서술: 다윗의 왕위계승사(삼하 9장-왕하 2장*)”,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74-104, 특히 95-97을 참고하라.

5) 연구의 범위를 구약 성서 안에서서도 다윗의 왕위계승사(삼하 9-20장, 왕상 11장)로 제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왕의 공의로운 사법 집행’이 여기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1-4절 + 19장 25-31절 그리고 15장 1-6절로 ‘왕의 이데올로기’의 계요소들 중에서 ‘왕의 사법적 행동’에 맞춰져 있다. ‘왕의 사법적 행동’에 관한 서술이 단순한 보고나 기록의 수준을 넘어 독특한 문학적 서술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이한 현상에 집중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본문 분석에는 일반적 모습 또는 당연히 예상되는 모습에 어긋나는, 즉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현상이 주 관찰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아이러니화된 표현들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일지를 찾는 것이 주를 이룰 것이다.⁶⁾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를 서술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 중 사무엘상 8장 3절 이하, 신명기 17장 14절 이하 그리고 시편 72편과 비교하며 평가하고자 한다.⁷⁾ 나아가 그러한 서술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아이러니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사상인 시편의 메시아 왕권 사상은 이 논문의 주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으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사법 개혁의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에 관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 6) 이 논문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연구 방법론은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의 적절한 조화이다. 다윗의 왕위 계승사에서의 주된 연구의 방향과 관심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통시적 연구 방법에 맞춰져 있었으나, 그 이후 공시적인 면에서의 관심이 증폭되었고, 특히 Literaturwissenschaft(독일신문예비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디트리히(W. Dietrich)는 사무엘서의 통시적(diachronic) 연구와 공시적(synchronic) 연구에 대해,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비평적 해석 방법이 이 분야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지배적이었으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누군가 이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진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공시적 연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W. Dietrich, "Synchronie und Diachronie in der Exegese der Samuelbücher eine Einführung", Walter Dietrich(ed.), *David und Saul im Widerstreit Diachronie und Synchronie im Wettstreit: Beiträge zur Auslegung des ersten Samuelbuchs* (OBO 206; Fribourg: Academic Press, 2004), 12. 게다가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Diasynchron(Diachron+Synchon)이란 우스꽝스러운 합성어는 이제는 결코 우습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어엿한 하나의 연구 방법론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관해 Th. Naumann/R. Hunziker-Rodewald(eds.), *Diasynchron: Beiträge zur Exegese, Theologie und Rezeption der hebräischen Bibel; Walter Dietrich zum 65. Geburtstag*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2009)를 참고하라.
- 7) 여기 선택된 비교 본문은 주로 이스라엘 왕의 이데올로기를 이상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여기에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 서술된 왕상 12장이 왕으로서 행하여야 할 책무를 망각한 사례로 비교될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이상화된 왕의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아이러니화됨을 통해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가에 논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논의를 생략하도록 한다.

2.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 사울, 솔로몬 vs 다윗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반드시 야웨(JHWH)의 선택에 의해 세워져야 하고, 말과 여자와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 것 그리고 율법을 유념하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관점 하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는, 뤼터스뵈르덴(U. Rütterswörden)에 따르면, 주변 고대 근동의 대제국들과 비교할 때 매우 약하고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며,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권과도 괴리가 있어 보인다.⁸⁾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도 고대 근동의 왕들과 같이 ‘왕권의 신적 기원과 왕이 신의 의지에 따라 땅을 통치할 의무’가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명기 외에서도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심 혹은 왕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여러 표현들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를 밝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개를 구약 성서의 정경적(canonical) 관점에서 살필 때 사무엘상 8장의 의미 또한 크다. 사사기의 말미에 언급된 대로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21:25)란 제도상의 결핍(institutional lack)에 배어있는 역사적 난항(難航)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사무엘 때에 실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분히 역사적이라기보다는 구약의 문학사적 의미(Literaturgeschichte)에서의 이 서술 시점은 이스라엘의 왕정 성립에 중요한 지표를 제시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의 형성 혹은 구체화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사무엘상 8장이 직간접적으로 품고 있는, 왕

8) U. Rüt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120. “[왕에게]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의 대제국의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의 미약한 위치 설정이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에서도 실제로 존재했었을 왕정과도 비교할 만한 것은 역시 아니다.”

을 세움으로써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무엘하 8장의 서술은 ‘고대 근동의 왕의 이데올로기’가 담고 있는 다양한 많은 요소들 중 두 가지를 주요하게 소개한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세위달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 즉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삼상 8:3)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왕의 공의로운 사법 집행’에 대한 기대이며, 둘째는 그들의 요구가 “아웨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삼상 8:7b)이라고 평가될 만큼 매우 도전적이고 불경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회하지 않을 근거로 내세운 ‘왕의 직접적인 전쟁 수행’에 대한 기대이다.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삼상 8:20b)이란 표현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이 두 가지의 요소는 사무엘하 8장에 부정적인 어조로 서술된 왕의 제도(삼하 8:11-18)와 긴장감⁹⁾을 형성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의 시작과 함께 제시되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israelite royal ideology)의 긍정적인 혹은 이상적인 면에서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의 요소들로 도출된 위의 세 가지의 개념들, 즉

- (1) ‘왕권의 신적 기원과 신의 의지에 부합해야 하는 왕의 의무’
- (2) ‘왕의 공의로운 사법 집행’
- (3) ‘왕의 직접적인 전쟁 수행’

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첫 세 왕, 즉 사울, 다윗, 솔로몬을 살펴보고자

9) 삼하 8장은 전체적으로 왕정에 대한 대조적 구도를 지니고 있다. 이 대조적 구도는 시작에서부터 이미 왕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반영하며, 현실의 모습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3-5절: 긍정적인 면/
왕의 정의로운 사법 집행]

[10-18절: 부정적인 면/아웨와
사무엘의 거부와 왕의 강압적 다스림]

[19-20절: 긍정적인 면/
왕의 직접적 전쟁 수행]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모두 야웨로부터의 신적 기원을 가진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각각에게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먼저 이스라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위에서 제시된 ‘왕의 이데올로기’의 요소들 중에서 ‘직접적인 전쟁 수행’에만 부합한다. 처음 왕이 아닌 ‘지도자’(מָלִיךְ, 나기드)로 소개(삼상 9:16; 10:1 참고)된 사울이 정작 왕으로 인정받고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침략에 대해 앞장서서 싸워 이긴 것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로 솔로몬의 경우는 ‘왕의 공의로운 사법 집행’에만 잘 부합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때에는 이미 외부의 크고 작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미 우위를 확보한 때문이기도 하나, 그의 어떤 직접적인 전쟁 수행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공의로운 사법 집행의 모습은 열왕기상 3장의 진짜 아이의 어머니를 가리는 유명한 재판을 통해 이스라엘 왕들의 그 누구보다도 눈에 띄게 부각되어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구약의 문학사(Literaturgeschichte)적 맥락에서의 어떤 구성적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¹⁰⁾ 이 두 왕과 달리 다윗은 ‘왕권의 신적 기원’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의 두 핵심 요소인 ‘왕의 공의로운 사법 집행’과 ‘왕의 직접적인 전쟁 수행’ 모두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놀랍게도 ‘다윗이 과연 이 두 요소에 부합하는 왕이었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요소에 대해 다윗은 매우 모호한(ambiguous) 모습으로 서술된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윗은 초기의 모습에서부터 적어도 사무엘하 8장까지 사울을 훨씬 능가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계승사(succession narrative)가 시작되는 사무엘하 9장 이후, 특히 10장부

10) 이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터는 그런 모습을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다.¹¹⁾ 대신 위에 제시된 ‘왕의 이데올로기’의 다른 요소인 ‘왕의 정의로운 사법 집행’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게 서술된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왕으로서 사법 집행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의도된 듯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음’ 혹은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자(使者)의 지혜와 같음’의 개념과 결부되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윗의 왕위계승사 속에서 왕으로서의 다윗의 사법 집행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 일관되게 비교와 대조- 특히 압살롬과 - 속에, 혹은 경멸과 조롱의 모습 속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다윗의 왕위계승사를 벗어나 솔로몬과 대조시킴으로써 절정에 도달하여 그 서술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왕의 직접적인 전쟁 수행의 모습이 다윗의 왕위계승사가 시작되면서 사라지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왕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들 중에서 ‘왕의 직접적인 전쟁 수행’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왕의 신적 기원’과 ‘왕의 공의로운 사법 집행’이 의도적으로 부각되어 논의되는데, 그 서술 방식이 의도된 문학적 서술 장치들(literary devices)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왕의 이데올로기의 아이러니화’(Ironisierung der Königsideologie)로 보고 아래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¹²⁾

3. 소위 왕위계승사에서의 왕의 사법적 행동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왕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왕에 의한 사법

11) 물론 삼하 10:17에 다윗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출정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같은 장에서 이 싸움의 시초에는 다윗이 출정하지 않았고, 요압과 아비새가 싸움의 핵심에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비적극적 태도는 11장부터 확연하게 드러난다.

12) ‘아이러니화’에는 ‘이상화’의 개념도 포함된다. ‘이상화’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같이 보이지만, 표면적인 이상화는 아이러니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견지하는 본문 관찰의 관점은 이것 혹은 저것의 두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관점에 이 두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행위는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왕위계승사에서 다윗은 종종 한 명의 재판관으로서 등장한다. 다윗이 왕으로서 행한 명백한 사법 행위에 대한 이야기와 혹은 그의 왕으로서의 사법적 판단들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하에는 모두 세 곳에서 서술된다. 12장 1-7b절, 14장, 16장 1-4절 + 19장 24-30절.¹³⁾ 이 외에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의 사법 행위와 관련하여 왕의 행세를 한 압살롬의 행위를 서술한 15장 1-6절을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곳에는 예외 없이 눈에 띄는 매우 독특한 서술 기법과 그 이면에 깔린 저자(Erzähler)¹⁴⁾의 서술 의도가 발견된다.

(1) 사무엘하 12장 1-7b절

서술적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하 12장은 11장과 내용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나단이 그가 꾸며낸 이야기 속의 한 부자를 다윗에게 고발하였을 때, 사무엘하 12장의 저자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부자의 악행에 대해 한 번은 사형으로 또 한 번은 재물 보상으로 판결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이중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더구나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형선고(12,5b מָוֹת וְכֶסֶף וְנֶחֱמָה, 벤-마베트 하이쉬)가 과연 가난한 사람의 양(f. חֲבֻשָׁה, 키브사) 한 마리만을 강탈했을 뿐인 그 부유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판결인가라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다. 결국 부유한 사람의 그 악행에 대해서는 4배의 보상을 말하는 두 번째 판결이 더 적절한 것이며, 사형선고는 오히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자신이 범한 간음과 그것을 가리기 위

13) 다윗의 왕위계승사의 범위를 사무엘하 9-20장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으로 볼 때,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고 보인 일련의 정적들의 숙청 행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만, 그것에 대한 서술은 이 논문이 우선적으로 '다윗의 사법적 행동'에 정조되어 있고, 논문이 지향하는 전체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하도록 한다.

14) 이후 언급되는 '저자'는 모두 독일어의 Erzähler의 개념이다.

해 우리야를 없애고자 한 다윗의 악행에 합당한 판결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다윗의 이 행위가 이후 야웨의 눈에 악한 것(11:27b)으로 평가되었고, 그것이 다윗에 대한 야웨의 심판(12:7ff, 11ff)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외에도 재판 행위에 대한 장면에서 다음의 세 가지의 특이점이 눈에 띈다. 첫째, 재판 행위에 왕의 진노가 개입된다는 것이다(12:5a וַיִּחַר-בְּאֵישׁ כְּמֹאד אֶף דָּוִד בְּאִישׁ כְּמֹאד, 바이하르-아프 다비드 바이쉬 메오드). 둘째, 맹세의 형식(חַי-יְהוָה כִּי, 하이-야웨 키)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냉소적’¹⁵⁾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것을 행한 그 사람’에서 ‘이것’(중성)을 표시하는 지시대명사가 זֶאת (조트/그[f.]), 즉 여성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זֶאת (조트/그[f.])는 중성의 의미인 ‘이것’을 표현하는 데에 הַ (제/그[m.]) 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¹⁶⁾ 사형 선고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5b절(חַי-יְהוָה הַעֲשֵׂה זֶאת, 하이쉬 하오쎬 조트/그것을 행한 그 사람)에서 זֶאת (조트/그[f.])를 사용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표현 형식은 보상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6b절의 הַיּוֹם הַזֶּה (한다바르 핫제/그 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평범한 표현이 아니다. 추측컨대, 5b절의 זֶאת (조트/그[f.])는 교묘하게도 3절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여성형의 표현들¹⁷⁾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자는 밋세바를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⁸⁾

맹세의 형식을 만드는 조어(Partikel) הַ (하이)는 구약에서 신명

15) ‘냉소적’이라는 것은 작가의 시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16) W. Gesenius, *Hebräische Grammatik völlig ungearbeitet von E. Kautzsch* (Hildesheim/Zürich/New York: Georg Olms Verlag, 1991), 136 b를 참고하라.

17) 여성적 표현은 먼저 כָּבֵה ... כִּבְּשָׁה (키브사 ... 케바트/딸과 같은 ... 어린 양)와 אֶן וּבָרָךְ (촌 우바카르/크고 작은 가족들, 2절)의 대비에서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일련의 여성형 동사들을 통해 확인된다. 예를 들면 לָקַח (턱달/그녀가 자란다), אָכַל (토칼/그녀가 먹는다), מָשַׁח (티쉬테/그녀가 마신다), כָּשַׁח (티쉬카브/그녀가 잔다)가 있다.

18) “그것(본래는 ‘그녀’)이 그의 입으로부터 먹는다”는 표현과 “그것(본래는 ‘그녀’)이 그의 잔으로부터 마신다”는 표현은 양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볼 때 이상하게 들린다. 무엇보다도 “그것(본래는 ‘그녀’)이 그의 품에서 잔다”는 표현은 비현실적이다. 이 표현들에는 한 여인, 즉 밋세바에 대한 암시임에 틀림없다.

אָוֶה(아웨)와 함께 44회 등장한다. 특히 이 표현은 왕의 사법적 행동의 맥락에서 사무엘하 12장 5절을 제외하고 모두 8번 사용된다.¹⁹⁾ 이 8곳에 사용된 맹세의 형식은 모두 왕의 명령²⁰⁾에 대해 그것을 결코 거스룰 수 없음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 39절은 45절과 관련하여 보면, 확실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울이 왕의 명령으로 결정한 전쟁에서의 규율이 놀랍게도 백성에 의해 거부되며, 그 거부의 말 속에, 즉 사울이 내린 왕의 명령과 백성들의 결의 모두에 הָיָה(하이)가 사용된 맹세의 형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는 사울의 명령에 대해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거부를 찾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선고한 사형 명령이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것은 6절에서 손해배상으로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7절에서 갑작스레 다윗 자신에게로 전가되어 버렸다.

사법 행위에 있어서 표출된 왕의 진노는 그 진노가 마치 아웨의 진노²¹⁾와 같이 작용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게 할 수 있다. 이 진노는 본래 잠언 20장 2절²²⁾, 16장 14절²³⁾, 19장 12절²⁴⁾ 등의 여러 곳에서 강조되는 바와 같이 악행을 막고 공의를 세우는 왕의 실제적 전쟁 선포로써 기능해야 한다. 왕이 일반적으로 아웨와 동일시되는 것도 바로 이 점에 서있다.²⁵⁾ 다윗 자신도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공의를 세우는 왕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에 대한 그의 진노는 아이러니하게도 곧바로

19) 사울에 의해서 3번: 삼상 14:39(45절 참고), 19:6, 28:10; 다윗에 의해서 3번: 삼하 4:9-12, 14:11, 왕상 1:29; 솔로몬에 의해서 1번: 왕상 2:24-25; 시드기야에 의해서 1번: 렘 38:16.

20) 좀 더 명확히 표현하면, 왕의 판결 혹은 결정 사항으로 볼 수 있다.

21) 출 22:24(히, 23절); 민 11:1; 삼하 24:1; 신 6:15; 사 5:25; 호 8:5; 숙 10:3, 욥 19:11을 참고하라.

22) 여기에는 אָוֶה(아프/진노) 대신 אָוֶה(에이마/공포)가 온다. 그러나 여기서도 불의함에 대해 “왕으로부터 나오는 위협”에 관해 말하고 있다.

23) 여기에는 אָוֶה(아프/진노) 대신 אָוֶה אָוֶה(하마트 멜레크/왕의 진노)가 온다.

24) 여기에는 אָוֶה(아프/진노) 대신 אָוֶה אָוֶה(자아프 멜레크/왕의 진노)가 온다.

25) 잠 24:21-22를 참고하라.

소멸되어 버린다.²⁶⁾ 다윗이 사법 행위에 있어서 한 번도 능력 있는 왕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²⁷⁾ 이것은 아마도 필자의 견해로 볼 때 왕위계승사가 품고 있는 일종의 경향성이다.

사무엘하 12장 15b-25절은 특이하게도 다윗을 매우 지혜로운 왕으로 서술한다.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보여준 평범하지 않은 행동과 그것을 통해 분명하게 서술된 지혜, 즉 “죽음에 대응하는 이성”(Rationalität des Umgangs mit dem Tod)은 사무엘상 11장과 12장 1-15a절의 반대편에서 다윗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특징 지운다.²⁸⁾ 다윗이 비록 이 부분에서는 사법 행위의 맥락에 서있지 않으나, 그는 의심의 여지없이 지혜의 왕의 이상적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지어 볼 때, 전혀 다른 이 두 종류의 왕의 상(像)을 이와 같이 서로 대비시켜 놓은 것은 구성적 비판의 관점²⁹⁾에서 이끌어 낼만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4장은 요압이 꾸민 가상의 소송 건에 관한 서술이다. 거기에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그의 아들이 저지른 형제 살해에 대해서 왕에게 청원을 하는데, 그것은 지파의 편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지나

26) 암논의 악행을 전해들은 다윗이 진노하지만, 그 진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7) 삼하 11:20(그러나 $\text{לְמַלְכִּי־הַמָּדִי}$ [하마트 멜레크/왕의 진노]와 함께); 13:21(אִפְרָיִם [아프/진노] 없이). 게다가 왕위계승사 밖에서 삼하 1:11-16($\text{אִיְהוָה־אִפְרָיִם}$ [이하르 아프/그가 진노하다] 없이); 4:9-10(역시 $\text{אִיְהוָה־אִפְרָיִם}$ [이하르 아프/그가 진노하다] 없이)을 참고하라. 이에 관해 K. W. Whitelam, *The just King. Monarchical Authority in Ancient Israel* (JSOT.S 1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 1979), 123-129를 참고하라.

28) C.-Y. Ku, *Weisheit in der Thronfolgeschichte Davids: Eine literarkritische und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der Weisheitsdarstell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ihrer Ironisierung* (KAANT 9; Kamen: Hartmut Spenner, 2009), 73-79를 참고하라.

29) 이것은 다윗의 왕위계승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요소들의 배치를 어떻게 했는가와 관련이다. 다윗을 한번은 매우 부정적으로, 또 한 번은 매우 이상적으로 그린다고 할 때, 그 구성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다.

치게 과도한 처벌(7절)을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저자는 사무엘하 12장과 유사한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윗은 이전에 나 단에게 당한 것처럼 또다시 요압에 의해 함정으로 유인된 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 대해 판결한다. 드고아에서 온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이 왕으로서 내린 판결(13절)을 근거로 하여 그를 자기모순에 빠뜨린다. 그 판결은 더구나 아웨라는 신명과 연결된 맹세 형식을 만드는 조어(11b절)가 사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사무엘하 14장에 보여주는 다윗의 사법 행위에 대한 서술에서 정작 놀라는 것은 17b절이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그렇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과 악을 (알아) 듣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כְּמַלְאָךְ הָאֱלֹהִים כֵּן אֲדַרְשִׁי הַמֶּלֶךְ לִשְׁמֹעַ) (17b절, 커말아크 하엘로힘 켄 아도니 함멜레크 리쉬모아 하토브 베하라아). 여기서 ‘듣는 것’은 ‘이해한다’³⁰⁾ 또는 ‘사법적 행동에서 발견해낸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³¹⁾

바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핵심이 발견된다. 왕은 비록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 능력에 국한되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동일시된다(17b절과 20절 참고).³²⁾ 이 개념이 당연히 이스라엘 내에서만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논쟁의 여지없이 이스라엘의 특징적인 왕의 이상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특별히 사법적 행동의 영역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으로 말이다.³³⁾ 또한 20절에 표현된 바, 왕이 당연히 지닌 것으로 언급된 특성으로서의, 하나님에 비견되는 지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내 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30) 왕상 3:9의 “듣는 마음”(שׁוֹמֵר לֵב, 레브 쇼메아)이라는 표현을 참고하라.

31) W. Gesenius, *Hebr. und Aram.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age unter verantwortlicher Mitarbeit von U. Rütterswörden u. J. Renz bearb. und hrsg. von R. Meyer H. Donner (Gesenius 18 1–5; Berlin/Heidelberg/New York: Springer, 1987–2008), 여기서는 5, 1383과 신 1:16을 참고하라.

32) 또한 삼하 19:27(히, 28절)도 참고하라.

33) Whitelam, *윗글*, 134를 참고하라.

것에 대해서 아십니다.”(וַאֲדָנִי חָכֶם כְּחֻכְמַת מֶלֶךְ הָאֱלֹהִים לָרַעַת אֶת-כָּל-אֲשֶׁר) בְּאֶרֶץ, 마도니 하캄 커호크마트 말아크 하엘로힘 라다아트 에트-콜-아쉐르 바아레츠).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כְּמֶלֶךְ הָאֱלֹהִים), 커말아크 하엘로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이”(כְּחֻכְמַת מֶלֶךְ הָאֱלֹהִים), 커호크마트 말아크 하엘로힘)란 문구를 통해 표현되는바 왕이 지닌 하나님에 비견되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놀랍게도 아이러니적으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칭송을 받은 왕 다윗이지만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의 아들들 구원해주겠다는 자신의 약속, 그것도 왕의 판결이라는 엄중한 권위로 주어진 약속이 결국은 암살림의 귀환에 대한 보증에 다름 아님을 눈치채기까지, 그 자신은 암살림을 귀환시키려고 하는 요압의 숨은 의도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³⁴⁾ 다윗이 그에게 의뢰된 소송 사건의 배후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지를 이후에야 겨우 깨달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왕에게 부여된 그러한 지혜의 특성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것(Sarkasmus)으로 나타난다.³⁵⁾

사무엘하 14장에서 서술되는 사법적 행동에서의 왕의 상(像)은 두 종류의 서술 방식 하에서 확인될 수 있다. 왕은 한편으로 그의 하나님에 비견되는 존재로 칭송되지만,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칭송에 충분히 걸맞지 못한 존재이다. 이것은 왕의 상(像) 자체가 저자의 어떤 악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실적 세계와 이상적 세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³⁶⁾

34) Ku, 윗글, 146-148을 참고하라.

35) 이것에 곧바로 이어지는 암살림에 관한 이야기(삼하 15:2-6)는 그가 왕위계승 이전에 이미 과도하게 왕의 자격으로서의 재판관 행세를 하는 모습을 서술하는데, 이것은 왕위계승사의 전체적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배치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암살림의 왕위계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다윗에게서 비춰진 재판관으로서의 아이러니화된 왕의 상(像)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한다.

36) Whitlam, 윗글, 135를 참고하라.

아레츠 베알라이 야보 콜-이쉬 아쉐르-이흐예-로-리브 우미쉬과타 베히츠다크티브).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은 6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흠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마음은 교묘하게도 사무엘상 8장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과 통하는 면이 있다. 압살롬이 그때 그들이 공의로운 재판과 그들의 앞에서 전쟁을 수행할 왕을 요구했었음을 알았다면, 그는 다시 여기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병거를 앞세우고 재판을 통해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바랐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곧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이 서술은 왕의 사법적 행동이란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시사한다. 왕위계승사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전술된 14장의 다윗의 모습, 특히 재판과 관련된 그의 모습과 이어질 16/19장의 다윗의 모습 사이에서 오히려 왕이 아닌 압살롬이 이상적 왕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6/19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특히 재판과 관련하여 더 아이러니화된다면, 도대체 왕위계승사가 보여주고자 하는 왕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무엘하 16장 1-4절 + 19장 25-31절

사무엘하 16장 1-4절은 엄격한 의미에서 왕의 사법적 행동에 속하지 않는 일화를 소개한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는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온 므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난다. 다윗은 그때 시바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야?”(מָה זֶה אֲשֶׁר-הֵינִי, 마 엘레 라크)³⁹⁾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주인의

39) “너, 도대체 왜 이러느냐?” 혹은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에 관해 H. J. Stoebe, *뫼글*, 374-375를 참고하라.

아들은 어디 있느냐?”(אִיִּה בֶּן־אֲדֹנָיִךְ, 아예 벤 아도네카)이었다. 시바는 적절하게 대답했고, 그로 인해 다윗의 은혜를 입어 므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 일로 인해 므비보셋과 시바 사이에 벌어질 앞으로의 갈등이 생겨난다.

이 일화는 사무엘하 19장 25-31절과 함께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전체 이야기에서 관찰되는 매우 세심하게 짜인 구조인 중앙 집중적 구성⁴⁰⁾의 한 부분에 속한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므비보셋이 친히 등장하는데, 저자는 그것을 “왕을 대면하여”(לִקְרַאת הַמֶּלֶךְ, 리크라트 함멜레크)란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한다. 그 때 다윗은 시바에게 그랬듯이 므비보셋에게도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두 번 모두 לָמָּה(라마/왜)를 사용한 질문이었다. “왜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לָמָּה לֹא־הָלַכְתָּ עִמִּי מִפִּיבֶשֶׁת, 라마 로 할라크타 임미 메피보셋) 그리고 “왜 너 여기서 또 황설수설이냐?”(לָמָּה תִּרְבֵּר עוֹד הִבְרִיךְ, 라마 터다 베르 오드 테바레이카).⁴¹⁾ 첫 번째 לָמָּה(라마/왜)질문은 사무엘하 16장 3-4절에서의 시바의 대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시바의 그 대답을 염두에 두고 므비보셋은 왕에게 그가 자신을 모함했음을 고발한다.

사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옳은지를 ‘듣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9장 28b절은, 특히 14장 17b절과 20절과 관련하여 볼 때, 더욱 묘하게 들린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그래서 당신의 눈에 옳은 것을 그대로 행하소서.”(וְאֲדֹנָי הַמֶּלֶךְ כְּמַלְאֲכַי הָאֱלֹהִים וְעֵשָׂה הַטּוֹב בְּעֵינַיִךְ), 바도니 함멜레크 커말야크 하엘로힘 바야쎬 할토브 베에이네카). 이것으로 므비보셋은 다윗이 완전한 왕으로서 사법 행위에 있어서 바르게 판결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뢰감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번째 לָמָּה(라마/왜)질문에

40) W. Dietrich/T. Naumann, *Die Samuelbücher* (EdF 287;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271을 참고하라.

41) 번역에 관해 Stoebe, *유클*, 420과 423을 보라.

이어진 왕의 판결은 놀랍게도 “너와 시바, 너희들은 너희의 밭을 나눠 가지라!”(אָתָּה וְשִׁבָּא תְחַלְקוּ אֶת־הַשְּׂדֵה, 아타 베치바 타흐레쿠 에트 하싸 데)였다. 결국 둘 중의 하나는, 확실히 시바일 것으로 보이는데, 불의하게 재산의 절반을 얻게 된 것이다.

므비보셋과 시바의 일에서 나타난 다윗의 사법적 행동은 구성상의 관점⁴²⁾에서 볼 때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과 깊은 연관성 하에 있다. 두 경우 모두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의 특징이 하나는 ‘나눈다는 모티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적인 혹은 신에 비견되는 지혜’인데 여기에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나눈다는 모티브’는 비록 동일한 동사의 형태로 오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하 19장 30b절에는 ‘나누다/분배하다’(פָּלַח, 할라크)로 그리고 열왕기상 3장 25a절에는 ‘쪼개다’(גָּזַז, 가자르)가 사용된다. 그렇지만 이 ‘나눈다는 모티브’는 두 재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특히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혹은 판단하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신적인 혹은 신에 비견되는 지혜’ 역시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모티브는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작용한다. 사무엘하 19장 28b절에서 신에 비견되는 판단력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신적 지혜(חֵכֶם אֱלֹהִים, 호크마트 엘로힘)는 그에 반해 바르게 작용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사무엘하 16장 1-4절과 19장 25-31절에서도 역시 이상적 왕의 상(像)의 맞은편에 현실적 왕의 상(像)이 교묘한 방법으로 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42) 이 구성상의 관점은 다윗의 왕위계승사를 넘어서서 ‘신명기 역사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4. 왕위계승사 이외의 다른 본문들과의 비교

왕위계승사에 나타난 다윗의 사법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왕의 상(像)이 형상화되어 나온다. 왜냐하면 역사 서술의 이면에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심의 여지없이 항상 실제적 역사가 있다.⁴³⁾ 이 논문에서는 왕의 사법적 행동에 대해 아이러니화되거나 또는 이상화된 서술들의 이면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묻게 된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왕의 사법적 행동에 관한 또는 왕의 그러한 행위에 연관된 다른 본문들과의 비교가 반드시 요구된다. 즉 사무엘상 8장 3, 5절 그리고 20절, 신명기 17장 14-20절, 시편 72편 1-4절은 비교해 볼만한 부분이다.

시편 72편 1-4절은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를 서술한다.⁴⁴⁾ 1절에서 하나님께 간구되는 것은 그가 [그의] 공의(צדקתו)와 [그의] 의(צדקה)를 왕에게 그리고 왕의 아들에게 수여해주시기를 바란다(45)는 것이다.⁴⁵⁾ 공의를 이루는 왕의 이상적인 상(像)은 2-4절에서 구

43) A. Berlejung, "Geschichte und Religionsgeschichte des antiken Israel", J. C. Gertz(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Eine Einführung in Literatur, Religion und 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In Zusammenarbeit mit Angelika Berlejung, Konrad Schmid und Markus Witte* (UTB 27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55-185, 64. "확실히 고대 근동과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역시 역사 기술(Geschichtsschreibung)은 역사 서술(Geschichtenerzählen) 속에서, 역사(Geschichte)는 (서술된) 역사(Geschichten) 속에서 이루어졌다." 게다가 또한 E. A. Knaut, "From History to Interpretation", D. V. Edelman(ed.), *The Fabric of History: Text, Artifact and Israel's Past* (JSOT SS 127; Sheffield, JSOT, 1991), 26-64, 47-50을 참고하라.

44) 시 72편을 하경택은 "일반적인 왕의 직무와 사명에 관한 기대와 염원을 담고 있는 시편"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관해 하경택, "하나님 닮아가기 Imitatio Dei로서의 정의: 시편을 통해서 본 구약성서의 '정의' 신학", 「장신논단」 48권 2호 (2016년 6월), 55, 58-59를 참고하라.

45) F.-L. Hossfeld/E. Zenger, *Die Psalmen II: Psalm 51-100* (NEB,AT: Würzburg: Echter, 2002), 416.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 역시도 왕정이 신적으로 정통성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지닌 세계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형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 » 의와 공의가 사회정치적 행동영역에서 신적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감 « 으로 말할 수 있다. 즉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자신이 법의 수여자이며, 그가 고대 근동의 왕들이 가졌던 역할을 한다. 그것을 통해 이 땅의 왕은 최종적으로 단지 실제적 왕인 아웨의 매개자/중간자이며 그의 직접적인 뜻에 복종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특성이 아웨가 예루살렘의 왕에게 » 그의(즉 하나님의) 공의 « 뿐 아니라 » 그의(즉 하나님의) 의 « 를 주셔야만 하며, 그러므로 그가 » 그의(즉 하나님의) 백성 « 을 의 가운데에 그리고 » 그의(즉 하나님의) 가난한

체화된다. 신명기 17장 14-20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를 서술한다. 비록 조금은 다른 형태, 즉 첫째, 아웨에 의한 왕의 선택, 둘째, 말, 아내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 것, 셋째, 율법에 대해 존중할 것들로 나타난다. 사실 이 두 곳에서의 서술은 이스라엘 왕정의 실제적 상(像)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상적인 상(像)으로 새겨진 것으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 3, 5절 그리고 20절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왕정 설립의 원인에 관해서 서술한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근거는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적 행동의 왜곡(삼상 8:3b)이었다. 비록 고전적인 왕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전쟁 수행의 책임, 즉 백성의 앞에서 전쟁을 이끌어야하는 책임(20b절)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이 역사 서술들 속에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⁴⁶⁾가 함축되어 있다. 이 세 본문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는 왕위계승사에서의 왕의 사법적 행동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재구성한 ‘왕의 이데올로기’와 비교할 때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왕의 이데올로기’가 단지 현실과 이상적 기대감 사이에 끼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영역 자체 내에서 추가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리로 저리로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의 사법실행은 어찌다 이상화되어 서술되기도 하고, 어찌다 아이러니화되어 신랄하게 비판받기도 한다. 심지어는 냉소적 풍자(Sarkasmus)로 희화화되어 서술되기도 한다. 이것으로 왕정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실제적 역사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우리의 눈앞에 제시된다. 그것은 제시된 혹은 상정된 이상을 좇아 움직이고

자 « 를 의롭게 재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기도에 반영되어 있다. »

46)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 속에서 내내 바라보고, 기대하는 ‘왕의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자 하나, 현실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좌절하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서의 분투라고 할 수 있다.⁴⁷⁾

비교된 세 본문들은 이스라엘의 특정한 시대에 귀속된다. 시편 72편 1-4절은 포로기 이전 시대로, 그것도 큰 무리 없이 이스라엘의 이른 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⁴⁸⁾ 신명기 17장 14-20절은 아마도 “신앗시리아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신명기적 개혁운동”⁴⁹⁾의 시기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확실히 신명기적 자료 이전의 것으로 볼 수도 있다.⁵⁰⁾ 사무엘상 8장 1-5절은 연대 설정과 관련하여 한결 더 복잡해 보인다. 그러므로 디트리히(W. Dietrich)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이 본문의 부분들의 생성에 관해 다양한 저자들, 입장들 그리고 시기들이 함께 영향을 주었음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엘상 8장에 관해 다층적 전망에서의 가설들이 세워지고 열띤 토론되는 것이 멈춰질 수는 없다.”⁵¹⁾고 밝힌다. 왕위계승사를 전체적인 한 단위로 보고 연대 설정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포로기 이전으로 가늠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필자의 견해로 볼 때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5. 나가는 말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는 다윗의 왕위계승사에서 역사 서술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아이러니화되어 서술되었다. 이 아이러니는 문학

47) U. Rütterswörden, “אלהים in 2 Sam 12,16”, *Mitteilungen und Beiträge* 17(1999), 50.

48) H.-J. Kraus, *Psalmen 1. Teilband* (BKAT 15/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0), 495.

49) E. Otto, *Das Deuteronomium* (BZAW 28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9), 364, 375-378.

50) U. Rütterswörden, *Von der politischen Gemeinschaft zur Gemeinde: Studien zu Dt 16, 18-18,22* (BBB 65; Frankfurt am Main: Athen um, 1987), 66.

51) W. Dietrich, *Samuel* (BKAT 8/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1), 349.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트리히는 삼상 8:1-5를 신명기적 편집 이전(vordtr)의 부분으로 인정한다. 특히 351쪽도 함께 참고하라.

적 표현장치의 하나로서 서술 속에서 언제나 숨겨져 있다. 이 아이러니는 현명한 독자로부터 단지 발견될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나, 발견된 때에는 명확한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곤 한다. 결코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낼 수 없는 아이러니의 특성 상 이런 표현 방식 하에서 진실은 더욱 교묘하게 숨겨져 있으나 그 진실이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효과는 배가가 되기 때문이다. 다윗의 왕위계승사에서의 왕의 사법적 행동에 대한 서술도 아이러니화된 형식이나 혹은 이상화된 형식⁵²⁾의 틀 속에서 ‘이상적인 왕에 대한 기대가 역사 속에서는 언제나 성취되지 못했음’을 강하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윗이 그 예시로 제시되었던 바대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러한 현실적인 상(像)은 그러나 성서 전체의 문화사적 면면한 흐름 속에 항상 반복해서 발견된다.

나아가 다윗의 왕위계승사의 저자는 자신이 상대한 독자들뿐 아니라 오늘의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극복되지 않는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오늘날의 통치자들에게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의 기본적 이상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는 특히 작금의 한국 사회에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과연 좋은 통치자의 모범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약 성서로부터의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통치자들에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그 권한의 기원이 신적인 것이며, 그러므로 신의 의지에 맞게 언제나 공의로운 통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제약들로 인해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구약의 ‘왕의 이데올로기’ 연구에 있어서의 작은 틈을 매우며, 나아가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서, 이스라엘 주변

52) 앞에서 밝혔듯이 이 ‘이상화’ 역시도 거의 모든 경우에 ‘아이러니’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의 ‘고대 근동의 왕의 이데올로기’가 이스라엘의 각각의 특정한 시기에 그리고 특정한 본문들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다.⁵³⁾ 그러나 문학사적인 면에서의 연구에는 아직도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남겨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쩌면 어떤 연대 설정에 대한 시도보다도 더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 구자용, “*Imago Dei, dominium terrae, Missio Dei*: 창세기의 인간 창조 서술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선교신학」 43집 (2016년 3월), 9-36.
- 소형근, “고대 이스라엘의 사법조직들과 재판관들”,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155-175.
- 오민수, “지혜문학적인 역사서술: 다윗의 왕위계승사(삼하 9장-왕하 2장)”,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74-104.
- 하경택, “‘하나님 닮아가기’ *Imitatio Dei*로서의 정의: 시편을 통해서 본 구약성서의 ‘정의’ 신학”, 「장신논단」 48권 2호 (2016년 6월), 37-66.
- Ahlström, G. W., “Die Königsidologie in Israel: Ein Diskussionsbeitrag”, *Theologische Zeitschrift* 18 (1962), 205-210.
- Berlejung, A., “Geschichte und Religionsgeschichte des antiken Israel”, J. C. Gertz(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Eine Einführung in Literatur, Religion und Geschichte des Alten Testaments. In Zusammenarbeit*

53)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에 강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이집트의 왕의 이데올로기’, ‘신앗시리아의 왕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 한다. 이러한 영향들은 또한 구약 성서의 많은 유사한 개념과 사상들의 연대 설정을 추정케 하는 데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mit Angelika Berlejung, Konrad Schmid und Markus Witte (UTB 27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55-185.

Dietrich, W., "Synchronie und Diachronie in der Exegese der Samuelbücher eine Einführung", Walter Dietrich(ed.), *David und Saul im Widerstreit Diachronie und Synchronie im Wettstreit: Beiträge zur Auslegung des ersten Samuelbuches* (OBO 206; Fribourg: Academic Press, 2004).

Dietrich, W., *Samuel* (BKAT 8/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11).

Dietrich, W./Naumann, T., *Die Samuelbücher* (EdF 287;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5).

Gesenius, W., *Hebr. und Aram.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age unter verantwortlicher Mitarbeit von U. Rütterswörden u. J. Renz bearb. und hrsg. von R. Meyer H. Donner* (Gesenius¹⁸ 1-5; Berlin/Heidelberg/New York: Springer, 1987-2008).

Gesenius, W., *Hebräische Grammatik völlig ungearbeitet von E. Kautzsch* (Hildesheim/Zürich/New York: Georg Olms Verlag, 1991).

Hossfeld, F.-L./Zenger, E., *Die Psalmen II: Psalm 51-100* (NEB, AT: Würzburg: Echter, 2002).

Knauf, E. A., "From History to Interpretation", D. V. Edelman(ed.), *The Fabric of History: Text, Artifact and Israel's Past* (JSOT SS 127; Sheffield, JSOT, 1991), 26-64.

Kraus, H.-J., *Psalmen 1. Teilband* (BKAT 15/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60).

www.kci.go.kr

- Ku, C.-Y., *Weisheit in der Thronfolgegeschichte Davids: Eine literarkritische und literatur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der Weisheitsdarstellung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ihrer Ironisierung* (KAANT 9; Kamen: Hartmut Spenner, 2009).
- Naumann, Th./Hunziker-Rodewald, R.(eds.), *Diasynchron: Beiträge zur Exegese, Theologie und Rezeption der hebräischen Bibel; Walter Dietrich zum 65. Geburtstag* (Stuttgart: W. Kohlhammer Verlag, 2009).
- Otto, E., *Das Deuteronomium* (BZAW 28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9).
- Rüterswörden, U., “אלהים in 2 Sam 12,16”, *Mitteilungen und Beiträge* 17 (1999), 45-51.
- Rüterswörden, U.,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 Rüterswörden, U., *Von der politischen Gemeinschaft zur Gemeinde: Studien zu Dt 16,18-18,22* (BBB 65; Frankfurt am Main: Athenäum, 1987).
- Stoebe, H. J., *Das zweite Buch Samuelis. Mit einer Zeittafel von A. Jepsen* (KAT VIII/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 Whitelam, K. W., *The just King. Monarchical Authority in Ancient Israel* (JSOT.S 1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 1979).

검색어

고대 근동의 왕의 이데올로기

이스라엘의 왕의 이데올로기

아이러니화

왕위계승사

왕의 사법적 행동

Ironic royal ideology in the so-called succession narrative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the legal proceedings of the King

Cha-Yong Ku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of Mission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on royal ideology in Israel and its neighbors, two elements appear as the relevant royal obligations: to carry out legal proceedings with justice and to wage war directly, as indicated in 1 Sam 8:3, 5 and 20. Surprisingly, in the so-called succession narrative, David neglects these two royal obligations. With regard to his legal proceedings as king or similar royal judgments (see 2 Sam 12:1-7b; 14; 16:1-4; 19:25-31), he is presented either as an incompetent judge or characterized in a subtle ironic way. How is this very conspicuous phenomenon to be understood? Is it possible that at this point the image of the king emerges in the history of Israel? If it is

www.kci.go.kr

only a literary form of representation, does it not have any meaning at all? If it does, what kind of help can be provided for the description of the Israelite royal ideology?

In this article, the court proceedings of David within the succession narrative are first described and assessed in detail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ironization. And then an attempt is made to compare the presentation of the royal court proceedings with other texts outside his succession narrative. In conclusion, the ironized royal ideology reflects a real existing image of the king in Israel, the only remaining problem is that of the date setting, the debate of which is to be open.

Keywords

Ancient Near Eastern Royal Ideology

Israelite Royal Ideology

Ironization

Succession Narrative

Legal Proceedings of the King

- 투고일: 2017년 4월 11일
- 심사일: 2017년 4월 22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5월 8일